

碩 士 學 位 論 文

舞 踊 公 演 에 임 하는 舞 踊 專 攻 學 生 들 의
準 備 性 에 關 한 調 查

2001 年

漢 城 大 學 校 藝 術 大 學 院

舞 踊 學 科

理 論 專 攻

禹 貞 淑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在 恩

舞 踊 公 演 에 임 하는 舞 踊 專 攻 學 生 들 의
準 備 性 에 關 한 調 查

A Survey on Readiness of Dance major
Students preparing for Stage performance

2001 年

漢 城 大 學 校 藝 術 大 學 院

舞 踊 學 科

理 論 專 攻

禹 貞 淑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在 恩

舞 踊 公 演 에 임 하는 舞 踊 專 攻 學 生 들 의

準 備 性 에 關 한 調 査

A Survey on Readiness of Dance major

Students preparing for Stage performance

위 論 文 을 舞 踊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1 年

漢 城 大 學 校 藝 術 大 學 院

舞 踊 學 科

理 論 專 攻

禹 貞 淑

禹貞淑의 舞蹈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1 年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목 차>

표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II. 이론적 배경	5
1. 무용동작 수행의 결정 요인	5
2. 학습 준비성	6
3. 준비성의 개념 및 중요성	8
4. 준비성의 조건	10
1) 신체적 조건	10
2) 심리적 조건	13
3) 사회적(환경적)조건	17
III. 조사 방법	24
1. 조사 대상	24
2. 조사 도구의 작성 과정	24
3. 신뢰도분석	27
4. 도구의 타당성 검증	31
5. 조사절차	33
6. 자료의 처리	33

IV. 결과 및 해석	34
1. 영역별 준비도	34
1) 영역별 · 문항별	34
2. 전공별 학생들간의 준비도 비교	45
1) 영역별 · 전공별	45
2) 영역별, 전공별, 문항별	49
V. 요약 및 결론	58
참 고 문 헌	61
부 록(설문지)	67
ABSTRACT	67

<표 목 차>

<표-1> 조사대상	24
<표-2> 문항구성내용	26
<표-3> 신체적조건, 건강도, 불안에 대한 항목	28
<표-4> 스트레스, 무대공포증, 지도받는 방법에 대한 항목	29
<표-5> 타인의 평가, 연습방법, 가정환경, 태도면에 대한 항목	30
<표-6> 영역 I - 신체적 조건	34
<표-7> 영역 II - 건강도	35
<표-8> 영역 III - 불안	36
<표-9> 영역 IV - 스트레스	37
<표-10> 영역 V - 무대공포증	38
<표-11> 영역 VI - 지도를 받는 방법	39
<표-12> 영역 VII - 타인의 평가	40
<표-13> 영역 VIII - 연습 방법 연구	42
<표-14> 영역 IX - 가정 환경	43
<표-15> 영역 X - 무용에 대한 태도	44
<표-16> 영역 III - 불안에 대한 반응	45
<표-17> 영역 V - 무대 공포증에 대한 반응	46
<표-18> 영역 VI - 지도 받는 방법에 대한 반응	47
<표-19> 영역 IX - 가정 환경에 대한 반응	48
<표-20> 영역 X - 무용에 대한 태도에 대한 반응	48
<표-21> 영역 II - 건강도	50
<표-22> 영역 III - 불안	51

<표-23> 영역 VII - 타인의 평가	54
<표-24> 영역 IX - 가정환경	55
<표-25> 영역 X - 무용에 대한 태도	56

국문초록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공연에 임하기 전에 갖는 객관적·주관적 준비성은 공연 결과에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준비성은 공연활동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는 무용수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며, 준비성에 관한 연구는 효과적인 무용수행에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조사 연구는 무용 전공학생들의 준비성을 주로 그들이 인지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환경적 조건으로 분류하여 조사함으로써, 준비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무용 공연에서 미칠 심리적 영향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본 조사 연구에서는 무용 전공학생들의 준비성을 전공별 학생들간의 반응을 비교하고, 영역별 준비성 요인간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충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개 대학교 무용 전공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지는 자기 기입법을 사용했으며, 이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용 전공학생들의 준비도 반응을 보면, 신체적 조건에서는 자신들의 신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조건에서는 불안한 심리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환경적)조건에서는 부모님, 선생님, 타인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별 학생들간의 준비도의 비교에서 신체의 관심면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면에는 현대무용 전공자가 더 자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조건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불안 심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사회적(환경적)조건에서는 주변 환경에 대해 현대무용 전공자가 더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무용 전공학생들이 무용 공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연전에 자기자신의 준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것을 기초로 공연 준비를 한다면 무용 공연의 현장에서 최상의 무용 수행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용수들이 공연 전 연습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은, 공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무용수들이 과연 무용공연 중 어떤 심리적 차원의 태세가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무용 심리학의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예술과 운동분야에서도 인간의 마음(mind)과 행동이 문제가 되는 분야에서는 심리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무용에 심리학을 접목하여 무용학의 한 연구 분야로 체계화(systematization)하기 위해서는 무용의 심리학적 연구가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희선, 1997).

무용 심리학(dance psychology)의 학문적 정의는 의미론적 측면에서 보면, 무용(dance)과 심리학(psychology)의 합성어로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미학적 기준에 입각한 신체동작을 통해 표현하는 예술로 정의되는 무용과 인간행동의 연구로 정의되는 심리학의 합성어이다. 즉 무용 심리학은, 의미 그대로 무용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간 행동은 내·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의 총합체로서 인지적 행동영역, 정의적 영역, 심리·운동적 행동영역으로 분류된다. 무용 행동은 심동적 영역의 하나로서 무용 심리학은 무용 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동적 행동을 과학적인 방법, 특히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응용과학이라 할 수 있다(문영, 1999).

무용 현상에서의 행동은 크게 무용 참여와 무용 수행으로 나눌 수 있다. 무용 참여는 무용수, 안무가, 교사, 또는 관객으로서의 참여를, 무용 수행은 공연 상황에

서의 무용수의 동작 수행을 의미한다. 무용 심리학은 수행의 측면을 강조한다.

광의로 해석한 무용 수행은, 공연 수행 뿐 아니라 무용 학습 상황에서의 교사와 학습자의 수행, 관객의 감상 및 비평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무용 심리학은 무용 수행에 관련된 심리학적 기제(mechanism)와 과정, 무용 학습과 수행의 향상 방법 등 무용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사회적 변인 및 그 작용 기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¹⁾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특성을 가진 무용 심리학에서 무용 수행의 과정 중 무용수들의 공연 전에 갖거나 갖추게되는 심리적 준비성 즉 주관적 준비성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²⁾

준비성이란 학습자가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거나 필요한 심리적, 생리적 조건을 말한다. 이 논리를 빌자면, 무용수에게는 무용 공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이때 필요한 주관적 차원의 조건을 여기서 심리적 준비성이라 말할 수 있다. 무용 공연의 측면에서 볼 때, 무용수들은 무용 공연시 그들의 정신적·신체적 긴장과 정신 집중을 조절하고, 자신감을 발휘해서 최상의 공연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무대에서 무용수들이 느끼는 불안과 긴장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은 공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무용수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로 인해 공연을 목전에 둔 무용수들은 여러 가지의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며, 이런 부담은 주위의 기대와 경쟁 심리가 클수록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무용수들은 주어진 공연에서 최고 수준의 공연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과도한 불안이나 긴장감을 감소시켜,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고 공연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무용현장에서 보면, 연습상황에서 탁월한 수행을 하던 무용수가 공연상황에서 자신

1) 문 영 (1999). 무용 심리학. 서울 : 보경 문화사. p.3-4.

2)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이란 말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바” 로 해석하며, “심리학적”이란 뜻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 논문의 주제로 사용한 「준비성」은 바로 이 주관적 준비성을 말하는 것이다.

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예를 번번히 본다. 이때 심리적 준비성과 무용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무용수들이 공연 전에 갖추게 될 준비성은, 자신감을 평가하여 발전시키고, 무용수들이 그들의 긴장과 집중도를 통제하게 하고, 상상의 기술을 이용하게 하며, 무용 부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무용수들의 공연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 공연 전의 심리적 주관적 준비성을 무용수가 느끼거나 인지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환경적)조건으로 나누고 각 조건에 대한 반응과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무용수들의 무용 공연 전의 심리적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무용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문제

무용 공연에 임하기 전에 무용수의 무용수행에 관련된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였으며, 대체로 주관적으로 경험하거나 인지한 준비성과 이에 관련된 조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본 영역별 준비도의 상태와 준비성에 있어서 전공별 학생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해 보려고 했다. 준비성 조건으로는 이론적으로 신체적 조건, 심리적 조건, 사회적(환경적)조건으로 설정하였고,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에서 다루는 조건이란 학생들이 지각한 주관적 조건을 말하며, 객관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I. 영역별 준비도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첫째, 신체적인 조건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심리적인 조건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는가?

셋째, 사회적(환경적)인 조건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II. 전공별 학생들간의 준비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첫째, 신체적 조건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심리적 조건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회적(환경적)조건에는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무용동작 수행의 결정 요인

무용수들의 공연 상황에서 무용동작 수행의 결과를 결정지어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수행 결과는 무엇보다도 공연 전까지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쌓아올린 기술의 정도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Alderman, 1974). 또 다른 요인으로는 체력이 있다. 어떤 종류의 무용동작 기술이더라도 그 기술의 수행은 체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무용동작 기술 수행의 지원 체계로서 체력은 곧 공연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성을 말한다. 기술, 체력과 함께 공연 상황에서 공연에 중요성을 갖는 또 하나의 요인은 체격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공연 상황에서는 연습으로 쌓은 동작 기술과 훈련의 결과로 얻어진 체력의 수준은 공연 직전의 수준과 비교하여 저하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무용수에 따라 공연시에 오히려 연습 상황에서보다 더 나은 수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그렇다면 무용수가 공연 상황에서 연습시보다 못하거나, 또는 더욱 잘하게 하는 원인, 즉 무용동작 기술과 체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는 공연장에서 무용수가 갖는 심리적 상태이다. 무용수는 습득된 무용동작 기술을 수행하는 공연장에서는 공연이라는, 특히 무용 경연의 경우에는 경쟁이라는 상황적 조건으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 긴장 등과 같은 부정적 색조의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의지, 정신력, 협동심, 예술적 감흥 등과 같은 긍정적 차원의 심리적 상태 역시 경험하게 된다. 그 중 불안과 같은 심리적 상태는 경쟁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지각으로 인한 반응으로 각종 심리적, 생리적, 생화학적 그리고 행동적 증상을 유발시키고 기술 수행에 대체로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술 수행이 외적, 상황적 정보를 처리한 결과이며 기술의 수행에 선행하는 정보 처리의 과정은 불안과 같은 심리적 상태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Welford, 1976).

공연시 무용수의 심리 상태는 그 전제 조건으로 공연이라는 상황적 자극과 수행자의 타고난 성향과 상호 작용한 결과로서 무용수 개인의 특유한 선천적 성향에 따라, 즉 무용수가 공연 또는 경쟁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여 정보를 처리하는가에 따라 심리적 상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 상태에서의 무용 수행을 결정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공연 직전까지 쌓아올린 기술과 체력을 바탕으로 일정한 구조의 체격이 운용된 결과이며 이는 공연 상황, 선천적인 성향과 상호 작용한 무용수의 심리적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³⁾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상태를 심리적 주관적 준비성이라 환언하고자 한다.

2. 학습 준비성

모든 학습은 학습자가 특정 학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될 수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의 실패를 방지하고 성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성(readiness)이 강조된다(Pheasant, 1985). 교육에서의 준비성이란 어떤 기술이나 기능을 언제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의 적정시기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은 인지적 능력의 훈련과정에서 준비성 개념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무용도 일종의 기능학습이기 때문에 이 학습준비성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심리학 사전에는 준비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어떤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준비적 조건을 갖추는 정도나 상태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학습에 기초가 되는 심리적·생리적 여러 기능, 지식, 동기, 신체적 조건 등이 포함된다. 준비성이 안되어 있으면 준비성 자체를 갖추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 준비성에는 발달적 준비성, 학습적 준비성, 태도적 준비성이 요구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특수교육학 용어 사전에서는 준비성이란 “새로운 학습 자체에 대하여 학습자가

3) 문영 (1999). 무용 심리학. 서울 : 보경 문화사. pp.149-150.

4) 大山 正, 吉田正招 (1978). 心理學小辭典. p.283.

학습을 하기에 필요한 소지를 갖추게 된 상태를 말한다. 요인으로 ①생리적 요인은 감각 기관, 충추 신경계, 근육 등의 성숙 ②심리적 요인은 정신 발달, 동기 형성, 정서적 갈등에서의 해방과 심리적 장애가 없는 일 등 ③경험적 요인은 앞서 학습했던 경험 개념의 기초” 라고 정의하였다.⁵⁾

변창진(1995)은 “교육에서의 준비성이란 교육장면에서 제시된 새로운 학습과제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현재의 인지적 구조의 적합성을 뜻하거나, 그러한 학습에 요구되는 노력과 연습을 할만큼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전지식의 상태를 의미한다.” 고 하였으며,⁶⁾ Zigler & Seitz(1982)는 “준비성을 성숙요인과 학습요인의 산물이며, 준비성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훈련경험을 통해서 길러야 한다. 그래서 “준비성을 교육하는 접근” 이라고 정의하였다.⁷⁾

고바야시 도시노부(小林利宣)는 “준비성이란 학습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어느 수준의 발달적 소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발달적, 학습적, 태도적 준비 상태를 준비성이라고 한다. 이것을 규정짓는 요인에는 성숙, 학습, 경험, 태도, 자세 등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학습 전반에 통하는 일반요인과 특정한 교과, 교재의 학습에 필요한 특수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현재는 준비성이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라기보다 조금씩 쌓여가는 것으로서 형성된다.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달의 순서성이나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통화된 교과내용을 부여하는 것이 극히 중요시된다.” 라고 하였다.⁸⁾

또한 준비성의 한 근거로 Underachievement(저성취 혹은 성취부진)의 개념이 있다. 능력만큼 수행 성적이 높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취부진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수행 성적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우메모토 요시도는 성취부진의 조건을 “첫째 생리적·신체적 요인으로 ① 감각 기관의 결함에서 오는 것, ② 운동 기능의 결함에서 오는 것, ③ 신체 허약에서 오는 것, 둘째 학습환경의 요인은

5) 특수 교육학 용어 사전 (1980). 서울 : 교육 과학사, p.423.

6) 변창진 (1995). 교육심리 - 인지발달적 접근 - . 서울 : 교육 과학사. pp.53-54.

7) Zigler, E, & Seitz, V. (1982). Head Start: a national laborator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61, pp.81-90.

8) 小林利宣 (1980). 教育·臨床心理學 辭典. (株)北大路書房, p.408.

①학교환경 - 시설, 소음, 조명 등 물적 학습 환경과 교사, 동료 등 인적 학습환경으로 분류 - 과 ② 가정환경은 부모의 교육적 관심, 자녀를 위한 시설, 문화적 상태, 가정의 분위기 등 ③ 지역 및 사회적·경제적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개체적·심리적 요인은 신체적·생리적 요인과 학습환경의 요인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학습자의 학습적성, 학습습관 등의 정신적 구조, 흥미, 의욕, 기대수준, 동기 등도 중요하다.” 라고 정의하였다.⁹⁾

3. 준비성의 개념 및 중요성

상기한 준비성의 정의를 토대로,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준비성이 중요하며, 어떤 효과적인 무용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심리적으로 준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준비성이란 어떤 행위에 대한 수행자의 적응 태세를 의미하는데, 준비성이 높은 사람은 행동 수행시 유기체의 긴장이 해소된다. 또한 신체적 준비성에 대응한 것으로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실체적 신체활동을 동반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공연의 장면이나 수행 모습을 상상하거나 심사숙고하는 것, 즉 공연하기 전에 공연과정을 시각적, 감각적 이미지로 생각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무용 공연에서 무용수들은 그날의 심신의 컨디션에 따라 공연에 영향을 미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훈련에서 심리적인 불균형을 잘 관찰해 보면, 어떤 날은 완벽하게 무용수행을 하는 날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무용수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준비성은 무용수의 심리적 상태를 조절하여 최적의 무용 수행력을 발현시키기 위함이거나 기능개선을 위한 훈련의 보조 역할이다. 정서를 통제하는 심리적 기능뿐 아니라 동작을 기억하거나 특정한 동작을 위한 신체의 훈련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어떠한 동작이라도 수행할 수 있

9) 梅本 義夫 (1983). 家庭과 學校, 어린이의 知能의 發達. 金子書房, pp.45-60

9) 김승근 (1999). 무용수의 공연에 대한 심리적 기능 분석. 한국무용 교육학회지 제10집, p.116.

고 어떠한 이미지도 동작으로 묘사할 수 있는 무용수는 잘 훈련된 신체와 완벽한 기능을 바탕으로 풍부한 표현력을 겸비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본인의 반복되는 연습과 끊임없는 노력 뿐 아니라 준비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훈련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용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마음과 신체 그리고 영혼의 총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예술형태로 이미지에 의하여 제공되는 풍부한 감각정보에 반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준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 연습법은 첫째, 현장감을 이용할 것, 둘째, 신체적 준비와 병행할 것, 셋째, 과거의 경험을 이용할 것, 넷째, 정신을 집중할 것, 다섯째, 1회의 연습시간을 5분 이내로 할 것, 여섯째, 평상시에 많이 연습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그러나 준비성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등과 모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준비성의 수준을 판단할 때에 개인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규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하고,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많은 요인의 복잡한 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고 난 후,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¹¹⁾

준비성은 기능의 향상 또는 공연을 앞 둔 정서적 통제를 위해서 뿐 아니라 동작 의미 전달, 동작의 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위하여 폭넓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준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여러 정의를 참고하여 무용 학습의 준비성을 첫째 신체적 조건, 둘째 심리적 조건, 셋째 사회적·환경적 조건으로 나누고, 심리적 조건을 주로 다루되, 신체적 조건과 사회·환경적 조건을 주관적 판단으로 다루어 보기로 했다.

11) 김승근 (1999). 무용수의 공연에 대한 심리적 기능 분석. 한국무용 교육학회지 제10집, p.116.

3. 준비성의 조건

1) 신체적 조건

신체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갖는 것은 무용수로 하여금 최상의 수준에 이르게 함으로써 공연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자세를 갖추게 한다.

(1) 신체적 조건

공연 상황에서 무용수의 동작수행의 결정 요인은 동작기술과 무용수의 체격 및 체력 조건에 있다. 무용수의 체격 조건은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비교적 고정적인 불변요인이라 상정할 때, 무용 공연 또는 경연 상황에서 무용수의 절정 수행 여부(연습 상황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는 결과적으로 목표하는 바 동작특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체력과 동작 기술의 적정화에 영향을 미친다.¹²⁾ 또한 무용수 자신의 신체적 불만감, 부적감, 통제력 상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공연 조건 등은 공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불만은 무용수들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신체적으로 여러 증상들을 느끼게 된다. 이런 증상에는 목 부위의 일시적인 근 수축, 사지 또는 전신의 과도한 땀의 분비, 그리고 이뇨 현상과 같은 신체적이며 생리적인 현상들이 있다.

부적감(不適感: feeling of inadequacy)은 무용수가 평소에 자주 사용해오던 의상, 토슈즈나 신발, 무대장치, 소도구 등에 대해 갑자기 불편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용수의 집중력이나 컨디션이 평소에 비해 좋지 않고 분명한 이유가 없이 피로하며 무언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모두 부적감에 속한다.

12) 문영 (2000). 연습조건과 공연조건간의 유사성 종류와 기술수준에 따른 공연상태불안과 동작수행 및 학습효과. 한국 무용과학회. p.8.

통제 상실은 무용수 스스로가 어떤 상황적 요인에 의해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로서 무용수들은 때때로 관객으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무용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공연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무용수의 불필요한 생각, 피로 등이 일어나기 쉽다.¹³⁾

그러므로 무용수들에게 미치는 신체적 조건은 자기 관찰로부터 성공적으로 자기통제를 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것은 개인이 자기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해 전망하는데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자기변화의 전략을 평가하고 수정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주는 개인적 자료를 제공한다. 매월 자기 몸무게 조사표를 보면서 개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피할 수도 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무용수들도 자기 관찰 위해 사용되는 장치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문서화된 자기관찰 기록은 종종 개인에게 (1) 행동양식(예를 들면, 연습, 휴식, 회식, 여행, 학습 등) (2) 그 행동의 선행조건들(예를 들면, 장소, 이전활동, 날씨, 선행된 생각 등) (3) 그 행동의 예 후(예를 들면, 감각, 사회적 피드백, 자기 진술 등) 등을 나타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기록을 통해 개인의 습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관찰은 단지 적절한 개인 자료를 모으기 위한 평가(assessment)장치일 뿐만 아니라 치료(treatment)전략의 기능으로도 볼 수 있다. 단순히 어느 한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그 행동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기의 몸무게를 도표화시킴으로써 원하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관찰은 성공적인 자기의 신체적 조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3) 김계숙 (1998). 무용공연시 심리적 불안의 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9(2), p.212.

(2) 건강도

운동이란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워 의도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말한다. 특히 자기개념/자긍심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개념/자긍심 증진은 학문적, 사회적, 감정적, 신체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변화를 통하여 이를 수 있다. 특히 신체적 요인들과 관련되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속적인 신체 운동이 정신건강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증명들이 최근 많이 대두되어 있다.

인간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개념/자긍심에 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Suls and Mullen(1982)은 자기개념은 개인의 능력, 경쟁, 성공 그리고 실패에 대한 자신의 평가라고 보았고,¹⁴⁾ 김정희 외(1995)는 자기개념이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생각, 감정 및 태도의 종합이라고 정의하였다.

Rosenberg(1979)는 자기개념/자긍심을 자기 자신에 대한 조직화된 지각(perception), 또는 객체(object)로써의 자기자신에 대한 개인의 사고와 느낌의 총체성으로 간략히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정신건강 영역의 이론가나 임상학자들은 자기개념/자긍심을 생활적응을 도와주는 기본적 요소로써 받아들이고 있다. 자기개념/자긍심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일상생활의 적응과 정신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동이 인간에게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학적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뒷받침되면서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즉, 운동은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며,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인간의 안녕(welling-being)의 증진을 가져다준다고 알려져 있다. ¹⁵⁾

14) Sulz, J, & Mullen, B. (1982). From the candle to the grave: Comparison and self-concepts of self-evaluation across the life span. In J. Sulz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Hillsdale, N.J.: Erlbaum. pp.97-125.

따라서 무용수들은 공연시까지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무용은 관객들에게 몸으로서 표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무용수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공연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심리적 조건

무용수에게 미치는 심리적 조건들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평가로부터 비롯된 결과들이다. 가령 무용수들에게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공연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면 불안, 스트레스, 무대 공포증 등과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심리적 조건들은 신체적 조건들과 마찬가지로 공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불 안

불안은 공연시 무용수가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문제로서 그 결과, 무용수는 평소 훈련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맞게 된다.

무용수가 공연 상황에서 연습 상황에 비해 자신의 기량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요인 중 결정적인 심리적 변인이 불안(anxiety)이다. 긴장, 초조, 스트레스 등과 유사한 개념인 불안은 학술적인 용어로 불안은 상상적인 위협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으로 불쾌감 또는 짜증감을 동반하는 우울, 긴장, 흥분 상태로 정의된다(Levitt, 1980 : Martens, 1990).

일반적으로 불안은 무용수 자신의 속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성 불안과 개인 외적인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태 불안으로 나눌 수 있으며(Spielberger, 1966), 불

15) ISSP (1991). Physical activity and psychological benefit. An ISSP Position Statement. Newsletter, 2, pp.1-3.

안의 구체적인 상황적 요인은 실패 공포, 제어 상실, 부적감 요인, 신체적 불만 요인, 죄의식 등으로 공연시 무용수의 불안은 개인의 상황에 대한 지각의 종류와 정도, 그 때의 생리적, 생화학적, 행동적 증상에 기초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안이 갖는 결과 중 공연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불안으로 인한 각종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증상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불안 증상이 갖는 무용수행 결과와의 관계, 즉 불안의 만성적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무용수들이 공연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연에 미치는 만성적 효과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러나 걱정 수준 이론 등에 의하면 불안이 반드시 부정적인 공연 수행을 초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관점도 신빙성 있게 수용되고 있다.

공연 상태 불안과 수행과의 관계를 예측하는 이론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욕구 이론에 기초한 불안과 수행과의 관계 설명, 둘째, 걱정 수준 이론, 셋째, 복합적인 불안 이론, 넷째, Hanin의 걱정 작동대(ZOF: Zones of Optimal Functioning)이론, 다섯째, Hardy의 격변 모형, 여섯째, Kerr의 역전 이론이 있다.¹⁶⁾

어느 형태의 공연, 경연이든 어떤 무용수에게도 공연 상태 불안은 존재하고 그 불안 수준은 무용 수행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하여 무용 수행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무용수의 불안을 통제, 조절하기 위해서는 평소 훈련과 연습시 불안 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 훈련을 하는 것과 불안의 원인이 주어졌을 때에 이를 지각하는 무용수의 지각 방식의 수정, 그리고 나타난 불안 증상을 해소시키는 방법의 터득 등이 있다.

16) 문영 (1999). 무용 심리학. 서울 : 보경 문화사. pp.180-193.

(2)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 회화의 한 부분이 된 만큼 대중에게 친숙한 것이며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사람이 특별히 수용된 능력에 외적인 제한을 받을 때 긴장을 일으키는 힘을 나타낸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신체에 요구된 부담에 대한 비구체적 반응(non-specific response)으로 정의되며 각성과 마찬가지로 어떤 류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중성적 의미에서의 생리적 반응을 말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긍정적, 부정적 성격을 모두 갖는 포괄적 의미이다. 즉 신체에 부과된 부담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일 때는 부정적 스트레스 또는 고뇌(distress)라 하고, 그것이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 스트레스 또는 안락(eustress)이라고 한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하나의 걱정(distress)으로서 스트레스의 해로운 효과에 반한 신체의 저항이 지나치거나 탈진했을 때 일어난다. 스트레스의 요인들은 당황과 분노, 감정적인 격노, 근육의 긴장, 폭력, 우울(불운, 절망, 비애, 또는 회의), 짜증, 급격한 심장의 박동, 고혈압, 두통, 불면증, 집중력 상실 등이 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결과로 보는 것으로 이것을 안락(eustress)으로서 힘차게 살기 위한 원동력인 것이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수용적이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적당한 양의 실패는 자극을 주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한다. 스트레스로 가득찬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무능함과 항구적인 손실을 전혀 받지 않지만, 심리 사회적인 성장을 거듭한다.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각 개인을 자극하고 치료 과정을 촉진시킨다.¹⁷⁾

따라서 부적절한 감정적 반응과 불안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키며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무용수들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공연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비현실적이고 혹독한 평가도 무용수

17) 박준희 (1998). 무용심리학 개론. 서울 : 대한미디어. pp.229-232.

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

스트레스의 증상은 신체에서는 피로, 질병, 부상 등이 있고, 감정에서 오는 우울과 의기소침 등이 있으며, 인식으로는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자기 비판적인, 자신감이 낮음과 비사교적 등이 있으며, 공연으로는 짜증스럽고 타이트한 공연, 트레이닝과 공연이 즐겁지 않음 등이 있다. 그러므로 무용 지도자들은 무용수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공연의 결과보다는 노력을 강조하고, 과도한 훈련을 피하고, 클래스에 다양성과 재미를 더하고, 부모나 다른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훌륭한 무용수가 되는 것이 의심스럽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도록 해준다.18)

(3) 무대 공포증

자신의 안전에 어떤 위험이 닥치거나 또는 외부적인 자극에 대응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인간은 누구나 공포를 느끼며, 또 장래에 닥쳐올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사태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공포는 사실상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보다도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데서 더욱 커지며, 생명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공포를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첫 공연에서 공포와 당황을 경험하게 되면 조그만 자극에도 공포에 떨게 된다.

공포를 경험할 때는 강력한 불쾌감과 무능력감을 갖기도 하며, 공포가 계속되면 공포로 인해 신경이 마비된 것으로 느끼게 되기도 한다. 공포는 집단을 붕괴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공포는 행동을 위한 신체의 준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게끔 한다.

무대 공포증은 공연 상태불안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무용공연시 무용수가 느끼

18) Taylor, J & Taylor, C. (1955). 무용심리학, (박중길 역, 1995), 서울 : 들불출판사, pp.174-176.

는 불안은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으로 나눌 수 있다. 특성불안은 원인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타고난 선천적 기질로부터이고, 상태불안은 원인이 외적상황, 즉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여기서 특성불안은 무대라는 상황에 대한 무용수 개개인의 선천적인 불안에 대한 감수성 정도를 뜻하는 반면에 상태불안은 무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일어난 불안의 정도를 말한다. 무대 공포증의 정도를 바꾸는 또 다른 요인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예상하는 일이다. 즉 공연 중인 무용수가 기량을 발휘할 때 나쁜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동료 무용수들에 의해서도 일어나기 쉽다. 즉 공연 도중에 동료 무용수의 실수를 목격하는 것도 그 심리적 선입견으로 인해 공포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무용수가 평소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무대 공포증의 요인이 된다. 그 같은 부정적인 예상은 바로 심리적 공포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사회적(환경적)조건

사회적 조건에는 교사, 부모님, 동료들로부터 격려 등이 있으며, 학교나 무용단에서 동료들 사이의 갈등, 교사나 부모로부터의 압박 등이 있다. 무용수들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얼마만큼 사회적 지지를 받았는가, 자아개념이 얼마만큼 뚜렷하는가에 따라 무용 공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1) 지도받는 방법

무용수가 학습의 초기 단계에는 자신의 동작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어 지도자, 즉 교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반복적 연습에 따라 교사의 요구 사

항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에, 또는 수행 이후에 동작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스스로 기준에 비추어 오차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외재적 피드백과 함께 무용수 자신의 내재적 피드백에 따라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지도자는 학습의 개인 또는 학습자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과 개별적 특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학습자의 준비도와 능력에 비추어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효과적인 무용동작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¹⁹⁾

지도자는 공연 상황에서 무용수의 심리 안정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무용학습 과정안에서도 신체적 동작 연습과 아울러 단계적인 심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용수에게 적용시켜 좋은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용수 각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하며, 그들의 무용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측정하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2) 타인의 평가

무용수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음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칭찬을 받아 타인에게 보다 좋은 인상을 주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무용의 목적은 정서의 표현, 미의 창조에 있지만 표현된 정서와 미는 이를 감상하고 평가하는 관객에게 전달되고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무용수나 안무가, 지도자는 관객의 반응과 평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관객은 무용수의 공연을 지켜보는 사람을 의미하며, 무용수의 공연을 단순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감상하는 수동적 타인의 임석(mere presence of passive others)과 어떤 형태로든 무용수와 상호 작용하는 상호 작용적 타인의 임석(presence of interactive others) 형태로 나뉜다. 수동적 타인의 단순한 임석은 다시 순수하게 방관하듯 존재하는 관객 집단(audience group)과 무용수와 상호작용을 전혀 않고

19) 문영 (1999). 무용 심리학. 서울 : 보경 문화사, p.90.

독립적으로 같은 무용 활동을 하는 공행적 관객(coactive audience)가 있다. 그 다음 상호 작용적 타인의 임석은 다시 경쟁적으로 공행하는 관객(competitively coactive audience)과 사회적 강화를 주는 관객(social reinforcement audience)으로 나뉜다. 경쟁적 공행 관객은 합동 공연이나 경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무용수의 수행을 볼 경우, 서로에게 관객이 되는 경우이다. 사회적 강화 관객이란 소위 무용수행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평가와 비판을 가하는 적극적 형태의 관객을 의미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는 관객, 즉 단순 관객이나 공행 관객의 존재가 왜, 어떻게, 무용수의 무용 수행에 상승 또는 하강 효과를 발생시키는가의 문제에 대한 직관적인 수준에서의 답은 관객의 존재가 흡인 효과(suctioning effect)를 가진다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는 관객 효과가 격려 효과(encouragement effect)나 최면적 암시 효과(hypnotic suggestion effect)를 가질 수도 있다.

무용 공연에 있어 관객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무용수의 동작 수행 정적인, 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하다. 관객이 존재함으로써 무용수에게 주는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각성 수준의 상승이다. 그리고 이 각성 수준의 상승은 무용수의 관객에 대한 의식, 즉 평가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관객의 존재로 인한 각성 수준의 증가는 평가 우려와 직결되어 있어, 평가 우려 정도는 무용수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 특성으로서, 불안 특성의 정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관객의 존재라는 특수한 상황적 자극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 여부에 따라 무용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²⁰⁾

(3) 연습 방법

무용수에게 동작 기술을 연습시키기 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무용수, 즉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이다. 구체적으로 무용수의 연령, 성별, 그리고 신체

20) 문영 (1999). 무용심리학, 서울 : 보경문화사, pp.207-213.

조건 및 성격 등의 문제는 지도자로 하여금 적절한 연습과 정보 제공의 단서를 제공한다. 무용수의 연령은 능력과 준비도의 문제와 함께 과제의 성격과 제시 방법을 채택하게 되며, 남녀 무용수 각각에 차별화 된 연습이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특성에 적절한 동작 과제를 제시한 후 본격적인 연습을 위한 연습 방법 역시 학습자와 과제의 특성과 관련시켜 조직화해야한다. 무용 수행에 있어서 연습 방법이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많은 연습 방법 중 집중법(massed practice)과 분산법(distributed practice)은 연습 시간과 휴식 시간의 배분에 따른 연습 방법으로 동작 기술을 시간적으로 어떻게 배분하여 연습시키느냐의 문제는 학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집중법은 '시행간의 휴식량이 매우 짧거나 거의 없어서 연습이 비교적 지속적인 방법'으로 분산법은 '시행간 또는 시행군 사이의 휴식량이 비교적 많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조작적인 수준에서 분산법은 휴식 시간의 길이가 연습 시간의 길이와 같거나 긴 경우를 말하며, 집중법은 연습 시간의 길이가 휴식 시간의 길이보다 긴 경우를 말한다. 또 다른 연습 방법인 전습법과 분습법의 결정은 과제의 복잡성과 과제의 조직적 특성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기초로 내려져야 한다. 즉 동작 기술의 복잡성은 높으나 조직성이 낮으며 분습법이, 복잡성이 낮고 조직성이 높은 동작은 전습법이 효과적이다. 외현적, 신체적 동작 없이 신체적 동작 과제를 인지적으로 시연하는 연습 방법인 심리적 연습은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동작을 생각하는 것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그 기술을 신체적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데서 비롯되는 압박감 없이 학습자의 오류를 교정하는 것은 물론 전략을 공고히 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학습자가 발생 가능한 동작과 전략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며, 동작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증대시킴으로써 무대에서의 공연 상황에서의 불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연습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연습 방법을 조직화했을 때, 비로소 효과적인 무용동작의 기술성 습득이 가능하며, 실제 공연 상황에서 절정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문영, 1999).

(4) 가정 환경

부모님의 격려와 뒷받침은 무용수들이 무용을 배우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이라 함은 개체에서 작용하는 외적인 자극적 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물리적·생물학적·사회적·정신적 사상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R. Baker에 의하면, 환경이란 인간적 구성요인과 비인간적 구성요인 및 이를 조정하는 통제기제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의 행동과 환경변인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았다.²¹⁾ 또한 K. Koffka는 환경을 지리적 환경(geographical environments)과 행동적 환경(behavioral environments)으로 분류하였는데 지리적 환경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공간의 총체 개념이고 행동적 환경은 개인에게 경험되고 의식되어지는 세계에 관한 개념을 말한다.²²⁾ 이처럼 환경이란 단순히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계가 아니고 유기체에 감각되어 경험되어지는 총체로서 개인의 생활과 행동에 직접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자아정체감의 발달 역시 언제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은 한 개인에게 있어 그 개인의 태어남과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이며 즉각적이고 일시적이며 기본적인, 비교적 영구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관계형성이 가능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은 행동의 틀을 만드는 장소, 즉 행동체제의 기초를 확립하는 곳이다. 그리고 가정은 사회기관 중 가장 최소의 단위로서 최초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사회관계에까지 확대 발전시키는 근본을 이루

21) R. G. Baker (1968). *Ecological Psychology: Concepts and Methods for Studying the Environment of Human Behavior*. Stanford, Calif: Standford University Press. pp.35-91.

22) K. Koffka (1965).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N.Y.: Harcourt Brace. pp.27-28.

는 곳이다.

따라서 가정환경은 모든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장이며, 인간의 모든 특성이 대부분 가정에서 형성된다고 볼 때 매우 중요한 교육의 장이라 하겠다. 특히 일생을 통해 형성되는 자아정체감이 일관된 자기상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인간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가정환경은 학교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 J. Bossard는 가정환경의 구성을 심리학적 환경에 기초를 두고 가정조직·가족구성원의 수·가정의 심리적 과정·가정문화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²³⁾ 가정조직은 가족구성원들의 비교적 영구적인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대가족·중가족·소가족 제도로 나누고 있다. 가정의 심리적 과정은 가족끼리의 심리적인 상호작용을 뜻하며 이 과정에 감각적 상호작용(sensory interaction)·정서적 상호작용(emotional interaction)·지적 상호작용(intellectual interaction)을 넣고 있다. 또한 가정문화는 가정이 사회집단의 하나로서 어떤 문화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뜻하며 이 가정문화는 보다 큰 사회의 문화체제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가정환경은 부모의 양육방법을 결정짓게 할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지적·정신적발달 또는 성격형성과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기초적이며 배경적 환경으로 작용한다.²⁴⁾

(5) 태도면

무용에 임하는 태도면에서는 무용수 개인의 사고, 습관이나 연습에 임하는 자세 및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

태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집단, 어떤 특정한 대상 혹은 특정한 대

23) J. H. Bossard (1960). The Sociology of Child Development. N.Y.: Harper & Brothers. p.128.

24) 홍성애 (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제 상호작용 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9-33.

상의 집단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적인 매너를 말하는 것으로서 학습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태도가 호의적인 것이든, 비호의적인 것이든 간에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 혹은 대상에 어떤 형태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대상을 향한 태도(attitude)는 세가지 주요 요소를 갖는다. 그것은 대상에 관한 신념(belief), 대상에 관한 감정(feeling), 대상에 대한 행동 경향(behavior tendencies)이다.²⁵⁾ 신념에는 대상에 관한 사실, 의견, 일반적 지식이 포함된다. 감정에는 사랑, 증오, 좋아함, 싫어함 및 그와 유사한 감정들이 포함된다. 행동경향에는 대상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 - 대상에 접근하는 것, 대상을 회피하는 것 등 - 이 포함된다. 태도의 세 측면에는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관해서 긍정적 신념을 가지며,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행동이 태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무용수들 또한 자기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자아개념에 따라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 자기자신을 쓸모 없고 무가치하며, 악하다고 보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자아체제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자아개념이 확고하고 현실적인 사람은 자기의 생활과 대인관계에서 현실적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고려해서 설문지의 내용을 결정하고 조사하였다.

25) 이현수 (1999). 심리학의 원리. 서울 : 양서원, p.488.

Ⅲ.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를 대학 및 대학원의 무용 전공 학생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 소재인 2곳 대학교와, 충남 소재인 2곳 대학교의 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1> 조사대상자

	학 부	대 학 원	계
현 대 무 용	32명	4명	36명
한 국 무 용	70명	13명	83명
발 레	65명	10명	75명
계	167명	27명	194명

2. 조사 도구의 작성 과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 작성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환경적)요인의 내용 선정을 위해서 다음의 설문내용을 기초로 사용하였다. (1) 신체적 요인에 관한 내용은 김지혜의 「자기 초점화

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2) 심리적 요인에 관한 내용은 이훈진의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이영자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를, (3) 사회적(환경적)요인에 관한 내용은 김정인의 「부적정동과 사회적 기대와 직무 스트레스와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 박윤창의 「고등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정영숙의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를 주로 참고하였으며, (4) 조사방법은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 과학 연구소에서 출판한 「심리척도 핸드북」을 토대로 재구성을 하였다.

반응을 점수화 하기 위해서 최소한 4개에서 7개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문항 진술은 문항 중 반은 긍정 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유도 질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은 부정 문항으로 작성했지만 채점 시에는 부정 문장의 문항은 반대 방향으로 점수화해서 통계처리를 하였다.

조사용지는 5점 척도의 평점 척도 형식으로 만들었으며, 이 척도치를 합계해서 영역별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문항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문항구성 내용

신체적	영역 I-신체적조건	외모, 무용수로서의 조건, 외모 비교, 비만, 몸매관리
	영역 II-건강도	많은 공연시 건강에의 지장도, 질병으로 인한 걱정, 식사후의 소화 기능 상태, 연습시의 건강상태
심리적	영역 III-불안	실패의 두려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연습 중 모든 일들이 귀찮다, 초조, 짜증이 난다, 부정적인 생각
	영역 IV-스트레스	동료들과의 연습, 자기의사 표시나 불만 표시, 연습 곤란함, 공연 전날의 수면 부족, 계획없는 연습
	영역 V-무대공포증	관중 앞에서 몸이 굳어진다, 표현방식에 대한 자신감, 불안시 먹는다, 무대에 서면 입이 마르고 목이 탄다
사회적·환경적	영역 VI-지도받는 방법	충분한 설명과 지도, 컨디션 조절에 대한 상의, 충분한 가르침을 받는다, 작품 소화에 충분한 지도, 이해한후 공연에 임한다, 선생님으로부터 관심과 격려를 받는다
	영역 VII-타인의평가	내 공연을 본 후의 관심, 남에 대한 의식, 동료들과의 유대관계, 비평받은 후의 위축도, 타인들의 나의 실수에 관한 생각, 최고의 무용수가 아닌 바라보는 시선, 나의 실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영역 VIII-연습방법	어떻게 출 것인가, 과거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믿음, 실수에 대한 대처 방안, 자신의 완벽도, 기술연습
	영역 IX-가정환경	부모님의 나의 춤에 대한 기대, 완벽한 무용수에 대한 기대, 부모님의 생각의 중요성, 부모님의 불화, 열성적인 성원
	영역 X-태도면	만족감, 동료들과의 만족감, 선생님과 만족감, 무용수라는 자부심, 왜 무용할까, 무용의 진로에 대한 영향

3. 신뢰도분석

신뢰성은 추정된 결과치의 일관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신뢰성은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되풀이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은 동일한 개념을 독립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측정도구로서 동일한 대상을 측정할 경우 측정치에 포함되어 있는 일관성 없는 변동오차의 정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 변수가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Crombach's alpha계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의 척도인 Crombach's alpha의 값이 0.75이상이면 최소한의 내용적합치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설문항목들은 강한 내적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본 변수들의 신뢰도 계수(α)는 대부분이 0.7이상이므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항목들을 하나의 척도로 간주하여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3>와 <표-4> <표-5>와 같다.

<표-3> 신체적조건, 건강도, 불안에 대한 항목

변수*	수정된 전항목 상관계수(내적일치도)	항목 제외시 알파	신뢰도 알파 (표준화 알파)
I-1	★0.2195	0.8005	0.7145 (0.8028)
I-2	0.5009	0.6862	
I-3	0.4936	0.6850	
I-4	0.4803	0.6864	
I-5	0.4228	0.6929	
Ⅱ-1	0.3879	0.6984	0.8125 (0.8428)
Ⅱ-2	★0.2452	0.7153	
Ⅱ-3	0.3135	0.7020	
Ⅱ-4	0.3294	0.7005	
Ⅲ-1	0.4193	0.6944	0.7429 (0.8142)
Ⅲ-2	0.4101	0.6924	
Ⅲ-3	0.4762	0.6875	
Ⅲ-4	0.4137	0.6949	
Ⅲ-5	0.4963	0.6934	

* 설문지 I Ⅱ Ⅲ 참조

★ 표는 문항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편(.20이하)임을 표시한 것임

<표-4> 스트레스, 무대공포증, 지도받는 방법에 대한 항목

변수*	수정된 전항목 상관계수	항목 제외시 알파	신뢰도 알파 (표준화 알파)
IV-1	0.5686	0.8577	0.8652 (0.8742)
IV-2	0.5308	0.8598	
IV-3	0.6194	0.8534	
IV-4	0.4543	0.8647	
IV-5	0.5713	0.8570	
V-1	0.6600	0.8503	0.8851 (0.8994)
V-2	0.6988	0.8483	
V-3	0.5940	0.8555	
V-4	0.5414	0.8594	
VI-1	0.4645	0.8642	0.8689 (0.8824)
VI-2	0.5515	0.8585	
VI-3	0.2965	0.7028	
VI-4	★0.2557	0.7063	
VI-5	0.4543	0.8647	
VI-6	0.5713	0.8570	

* 설문지 IV V VI 참조

★ 표는 문항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편(.20이하)임을 표시한 것임

<표-5> 타인의 평가, 연습방법, 가정환경, 태도면에 대한 항목

변수*	수정된 전항목 상관계수	항목 제외시 알파	신뢰도 알파 (표준화 알파)
VII-1	0.3843	0.7734	0.7718 (0.7743)
VII-2	0.5427	0.7312	
VII-3	0.7044	0.6898	
VII-4	0.4822	0.7466	
VII-5	0.5799	0.7213	
VII-6	0.4311	0.7595	
VII-7	0.4651	0.5388	
VIII-1	0.5100	0.8330	0.8436 (0.8762)
VIII-2	0.5890	0.8285	
VIII-3	0.5344	0.8322	
VIII-4	0.5484	0.8309	
VIII-5	0.5762	0.8296	
VIII-6	0.5062	0.8326	
IX-1	0.4927	0.8326	0.8765 (0.8961)
IX-2	0.5099	0.8332	
IX-3	0.4526	0.8329	
IX-4	0.3932	0.8352	
IX-5	0.5725	0.8388	
X-1	0.6214	0.7342	0.7871 (0.7838)
X-2	★0.2848	0.8036	
X-3	0.5372	0.7557	
X-4	0.6405	0.7309	
X-5	0.6051	0.7404	
X-6	0.5496	0.7520	

* 설문지 VII VIII IX X 참조

★ 표는 문항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편(.20이하)임을 표시한 것임

4. 도구의 타당성 검증

설문지가 과연 그 내용과 조사방법이 논리적 타당성과 내용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무용학과 교수 3명에게 의뢰해서

- (1) 이 설문지의 내용이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에 맞는 것인지?
- (2) 이 설문지의 내용이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목적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 (3) 설문지의 설문방법이 적절한지?

를 평가해주도록 의뢰했다. 이 타당성 평가에 반응해준 교수는 경성대학교 H 교수, 원광대학교의 K 교수, 명지대학교의 L 교수이다.

평가교수에게 보낸 평가의뢰서는 다음과 같다.

1. 각 영역별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점수

- 매우 부적절하다 1점
- 부적절하다 2점
- 보통이다 3점
- 적절하다 4점
- 매우 적절하다 5점

2. 설문지 목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점수

- 매우 부적절하다 1점
- 부적절하다 2점
- 보통이다 3점

적절하다 4점

매우 적절하다 5점

위에서와 같이 타당성 평가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 (1) 영역별 타당성

(3명교수의 점수를 합한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

I 영역 「신체적 조건」 3.3 (평가평균점수)
II 영역 「건강도」4.3
III 영역 「불안」4.3
IV 영역 「스트레스」5.0
V 영역 「무대 공포증」5.0
VI 영역 「지도받는 방법」 4.7
VII 영역 「타인의 평가」 4.7
VIII 영역 「연습방법」4.3
IX 영역 「가정환경」4.3
X 영역 「태도면」4.7

평가기준 (2) 설문지의 목적 타당성

(3명교수의 점수를 합한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

1. 신체적 요인 (I 영역, II 영역)

평가평균점수 3.9

2. 심리적 요인 (III 영역, IV 영역, V 영역)

평가평균점수 4.8

3. 사회적(환경적)요인 (VI 영역, VII 영역, VIII 영역, IX 영역, X 영역)

평가평균점수 4.5

위 결과를 보면 심리·사회적 요인은 매우 적절한, 신체적 요인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조사절차

조사용지를 작성하여 1999년 10월에 H대학교, J대학교, D대학교, K대학교에서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문항 중 응답을 하지 않은 응답자의 부수 1부와 회수되지 않은 부수 5부를 제외시킨 최종자료 194부를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6. 자료의 처리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SPSS/PC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절차로는 먼저 표본 및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53개 문항별, 대학원-학부별 반응과 10개 영역별 반응을 척도치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그리고 대학원과 학부, 각 전공간의 반응의 차이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논문의 실증적 조사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53문항 중 문항 신뢰도가 낮은 4개 문항을 빼고 다시 계산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영역별 준비도

1) 영역별 · 문항별

<표-6> 영역 I - 신체적 조건

문항	대학원		학부		전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4.45	1.11	4.13	1.15	4.29	1.13	1.38
2	2.63	1.13	2.51	1.10	2.57	1.12	0.51
3	3.70	1.08	3.38	1.09	3.54	1.09	1.43
4	3.85	1.21	3.30	1.27	3.58	1.24	2.18**
5	3.00	1.12	3.43	1.30	3.22	1.21	1.818**
총계	3.45	1.13	3.39	1.18	3.42	1.16	0.25
총계**	3.23	1.14	3.16	1.19	3.23	1.17	0.21

* $p < 0.05$ ** $p < 0.01$ *** $p < 0.001$

★ 표는 영역별 해석에서는 빼기로 함 ** 표는 I-1문항을 빼고 다시 계산한 것임

<표-6>와 <부록 I>을 참조하면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① 「신체적 조건」에 대한 관심도 중에서,

‘날씬한 외모’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 학생들은 매우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용수로서의 조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타인과의 외모의 비교'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0.05 < p < 0.1$), '비만'에 대해서도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몸매관리'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문항에 대한 반응을 보면 학생들은 비만을 비롯하여 몸매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신체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무용수로서 필요한 「신체적 조건」에 대해 학생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표-7> 영역 II - 건강도

문항	대학원		학부		전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37	0.99	3.20	1.28	3.29	1.14	0.79
2★	4.07	0.94	4.00	1.25	4.04	1.10	0.34
3	3.44	1.34	3.66	1.28	3.55	1.31	0.80
4	4.15	1.21	3.90	1.24	4.03	1.23	0.99
총계	3.58	1.13	3.68	1.26	3.63	1.20	0.41
총계★★	3.65	1.18	3.59	1.27	3.62	1.23	0.34

* $p < 0.05$ ** $p < 0.01$ *** $p < 0.001$

★ 표는 영역별 해석에서는 빼기로 함 ** 표는 II-2문항을 빼고 다시 계산한 것임

② 무용수에 있어서 건강상태는 절대적 조건이며, 특히 공연 결과에 지대한 영

향을 준다.

무용수로서 요구되는 <표-7> 「건강도」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는,

‘많은 공연에도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는 문항에 대한 반응을 보면,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주 건강하다고는 반응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공연에 대한 걱정’에 있어서는 질병에 대한 염려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후의 소화 기능 상태’에서는 신경을 비교적 쓰는 편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시의 건강상태’에서는 공연을 앞두고 신경을 써 두통, 소화불량 등과 같은 증상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건강도」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 학생들은 불안 심리가 덜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영역 III - 불안

문항	대학원		학부		전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2.22	1.03	2.53	1.19	2.38	1.11	1.42
2	2.81	0.82	2.93	1.11	2.87	0.97	0.67
3	2.74	1.17	2.65	1.14	2.70	1.16	0.37
4	2.26	1.07	2.72	1.18	2.49	1.13	2.04**
5	2.48	1.07	2.80	1.14	2.64	1.11	1.43
총계	2.50	1.10	2.73	1.15	2.62	1.13	1.00

* $p < 0.05$ ** $p < 0.01$ *** $p < 0.001$

③ <표-8> 「불안」에 관해서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실패의 두려움’에 있어서 학생들은 두려움의 정도는 비교적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은 자신감이 있는 쪽으로 반응하였으며, ‘연습 중 모든 일들이 귀찮아진다’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게 귀찮아하지 않는 쪽으로 반응하였다.

‘불안, 초조, 짜증이 난다’에서도 비교적 불안하지 않는 쪽으로 반응했으며, ‘긍정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게 긍정적인 쪽으로 반응하였다.

전반적으로 「불안」에 관해서는 학생들은 비교적 적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자신감 정도에서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영역 IV - 스트레스

문항	대학원		학부		전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1.93	1.15	2.09	1.17	2.01	1.16	0.67
2	3.37	1.06	3.19	1.33	3.28	1.20	0.79
3	1.78	1.10	2.46	1.24	2.12	1.17	2.93**
4	2.15	1.27	2.21	1.20	2.18	1.24	0.23
5	2.63	1.31	2.74	1.27	2.69	1.29	0.41
총계	2.37	1.18	2.54	1.24	2.46	1.21	0.69

* $p < 0.05$ ** $p < 0.01$ *** $p < 0.001$

④ 스트레스는 학습에 있어서 부정적 · 긍정적 효과 모두를 준다.

<표-9> 「스트레스」에 관해서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동료들과의 연습’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비교적 적게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의사 표시나 불만 표현’에 있어서 비교적 높게 자기의사 표시나 불만표시를 못하는 쪽으로 반응하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에 연습이 곤란함’에 대한 인식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비교적 낮게 신경을 안 쓰는 쪽으로 나타났다.

‘공연 전날의 수면 부족’에 있어서는 비교적 그렇지 않은 쪽으로 반응했다.

‘계획 없는 연습에 있어서의 불만’은, 비교적 불만이 없는 쪽으로 반응했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에 관련된 상황에 있어서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영역 V - 무대공포증

문항	대학원		학부		전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2.04	0.88	2.55	1.12	2.30	1.00	2.68***
2	2.07	0.94	2.54	1.17	2.31	1.56	2.32**
3	2.56	1.26	2.58	1.29	2.57	1.28	0.08
4	2.19	1.19	2.46	1.26	2.33	1.26	1.08
총계	2.21	1.07	2.53	1.21	2.37	0.07	1.41

* $p < 0.05$ ** $p < 0.01$ *** $p < 0.001$

⑤ <표-10> 「무대 공포증」에 관해서 결과를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관중 앞에서 몸이 굳어진다’에 있어서 심각한 정도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신의 표현방식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신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불안 시 음식을 먹는다’와 ‘무대에 서면 입이 마르고 목이 탄다’에 있어서도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무대 공포증」에 있어서 학생들은 비교적 모든 문항에 있어서 심각한 불안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표-11> 영역 VI - 지도를 받는 방법

문항	대학원		학부		전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44	1.17	3.02	1.27	3.23	1.22	1.71
2	2.07	1.02	2.16	1.19	2.12	1.11	0.42
3	2.96	1.10	2.48	1.08	2.08	1.09	2.11
4*	2.70	0.94	2.63	1.03	2.67	0.99	0.35
5	3.15	1.18	3.11	1.13	3.13	1.16	0.16
6	2.59	1.06	2.67	1.21	2.63	1.16	0.36
총계	2.82	1.08	2.68	1.15	2.75	1.12	0.62
총계**	2.84	1.11	2.69	1.18	2.64	1.15	0.17

* $p < 0.05$ ** $p < 0.01$ *** $p < 0.001$

★ 표는 영역별 해석에서는 빼기로 함 ** 표는 VI-4문항을 빼고 다시 계산한 것임

⑥ <표-11> 무용실기 「지도를 받는 방법」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작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지도’에 있어서 선생님과의 교류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의도 $p < .05$), ‘컨디션 조절에 대한

충분한 상의'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컨디션 조절을 위한 사전 지도를 못 받는 것으로 응답했다.

'충분한 가르침을 받는다'에 대한 인식에서는 비교적 낮아 충분한 지도를 받고 있지 못한 쪽으로 반응했다.

'작품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받는다'에 있어서도 비교적 충분히 지도를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충분히 이해한 후 공연에 임한다'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힘들 때 선생님으로부터 관심과 격려를 받는다'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관심과 격려를 덜 받는 것으로 반응했다.

전반적으로 「지도를 받는 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은 선생님과 작품에 임할 때의 교류는 비교적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그 외의 개인과의 교류감에서는 비교적 낮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영역 VII - 타인의 평가

문항	대학원		학부		전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85	0.85	3.54	1.13	3.70	0.99	1.67*
2	2.96	1.35	3.49	1.07	3.23	1.21	1.94*
3	4.15	0.76	3.75	1.08	3.95	0.92	2.37**
4	2.74	1.24	3.30	2.64	3.02	1.94	1.08
5	3.22	1.07	2.98	0.99	3.10	1.03	1.09
6	1.81	1.06	2.53	1.27	2.17	1.17	3.18***
7	2.63	1.06	2.80	1.26	2.72	1.16	0.75
총계	3.05	1.05	3.20	1.35	3.13	1.20	0.66

* $p < 0.05$ ** $p < 0.01$ *** $p < 0.001$

⑦ <표-12> 「타인의 평가」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이 내 공연을 본 후’의 관심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의식에서도 비교적 높게 남을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들과의 친밀한 유대관계’에 있어서도 비교적 높게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평받은 후의 자기자신의 위축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게 나와 위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위 사람들이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대한 인식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의 무용수가 아닌 것에 대한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인식에서는 비교적 낮게 반응을 보여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의 실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도 비교적 낮게 반응을 보여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타인의 평가」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학생들은 타인의 시선에 비교적 높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연자체와 동료와의 유대관계, 자기에 대한 인식에서는 긍정적이다.

<표-13> 영역 VIII - 연습 방법 연구

문항	대학원		학부		전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4.03	0.66	3.70	1.18	4.00	0.92	2.58**
2	3.30	1.27	3.37	1.15	3.34	1.21	0.27
3	2.44	1.07	2.88	1.14	2.66	1.11	1.96*
4	3.52	1.26	3.13	1.14	3.33	1.20	1.62
5	3.93	0.94	4.01	1.08	3.97	1.01	0.40
6	3.04	1.10	3.43	1.11	3.24	1.11	1.71*
총계	3.42	1.05	3.42	1.14	3.42	1.10	0.00

* $p < 0.05$ ** $p < 0.01$ *** $p < 0.001$

⑧ <표-13> 「연습 방법 연구」에 관한 것에서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 출 것인가에 대한 상상’에 있어서는 늘 춤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매우 높은 반응을 보였다.

‘연습 시 과거의 실수에 대한 동작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여 다소 위축감이 드는 것으로,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신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연습 시 실수에 대한 대처 방안’에 있어서 실수에 대한 것을 생각하며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자신에 대한 완벽도’에 대한 바램은 매우 높은 반응을 보여줬다.

‘빈틈없는 기술 연습’에 있어서도 비교적 높게 반응을 보여 신경을 쓰며 연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25 < P < .05$).

전반적으로 「연습 방법 연구」에 있어서 학생들은 연습에 많이 충실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영역 IX - 가정 환경

문항	대학원		학부		전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78	1.34	3.81	1.28	3.80	1.31	0.11
2	2.74	1.35	3.27	1.27	3.01	1.31	1.91*
3	3.00	1.33	3.16	1.28	3.08	1.31	0.58
4	3.52	1.17	2.92	1.31	3.22	1.24	2.43**
5	3.48	1.40	3.62	1.35	3.55	1.38	0.50
총계	3.30	1.32	3.36	1.30	3.33	1.31	0.22

* $p < 0.05$ ** $p < 0.01$ *** $p < 0.001$

⑨ <표-14> 「가정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님의 나의 춤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부모님 비교적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벽한 무용수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가족들이 기대를 비교적 높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나에게 대한 생각의 중요성’에 있어서 부모님의 생각이 자기자신에게 영향이 미친다고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의 불화’에 관해서와 ‘부모님의 열성적인 성원’에 있어서도 비교적 높게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기대와 불화 정도가 자기자신에게 영향을 비교적 높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15> 영역 X - 무용에 대한 태도

문항	대학원		학부		전체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70	0.94	3.13	1.17	3.42	1.06	2.82***
2 *	4.04	0.74	3.59	1.04	3.82	0.89	4.95***
3	3.78	0.92	3.02	1.16	3.40	1.04	3.83***
4	3.62	1.22	3.49	1.14	3.56	1.18	0.52
5	4.15	0.97	3.53	1.37	3.84	1.17	2.89***
6	4.52	1.10	4.02	1.25	4.27	1.18	2.45***
총계	3.97	0.98	3.46	1.19	3.72	1.09	0.49
총계**	3.95	1.03	3.44	1.22	3.70	1.13	0.50

* $p < 0.05$ ** $p < 0.01$ *** $p < 0.001$

* 표는 영역별 해석에서는 빼기로 함 ** 표는 X-2문항을 빼고 다시 계산한 것임

⑩ <표-15> 「무용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무용에 대한 만족감’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동료들과의 관계 만족감’에 있어서도 비교적 높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감’에 있어서도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한 사람의 무용수라는 자부심’에 있어서도 비교적 높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무용할까’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목적의식이 유의한 정도로 비교적 높게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은 진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진로에 대한 회의를 유의한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민이 많은 것으로 반응했다.

전반적으로 「무용에 대한 태도」의 인식에 관해서 학생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전공별 학생들간의 준비도 비교

1) 영역별 · 전공별

① 영역 I - 신체적 조건에 대한 반응에서는 전공별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② 영역 II - 건강도에 대한 반응에서는 전공별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16> 영역 III - 불안에 대한 반응

총계	전공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전체	t
평균		2.44	2.61	2.67	2.57	
표준편차		0.71	0.69	0.66	0.69	
현대-한국						1.21
한국-발레						0.56
현대-발레						1.98*

* $p < 0.05$ ** $p < 0.01$ *** $p < 0.001$

③ <표-16> 「불안」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 발레 전공자가 5%수준에서 유의하게 두려움에 대한 불안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영역 IV -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서는 전공별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17> 영역 V - 무대 공포증에 대한 반응

총계 / 전공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전체	t
평균	2.35	2.50	2.49	2.45	
표준편차	0.65	0.79	0.80	0.75	
현대-한국					2.08*
한국-발레					0.08
현대-발레					1.98*

* $p < 0.05$ ** $p < 0.01$ *** $p < 0.001$

⑤ <표-17> 「무대 공포증」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 한국무용 전공자가 무대에 대한 공포심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 발레 전공자가 무대에 대한 공포 심리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영역 VI - 지도 받는 방법에 대한 반응

총계	전공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전체	t
평균		2.81	2.73	2.70	2.75	
표준편차		0.59	0.76	0.76	0.70	
현대-한국						0.62
한국-발레						0.25
현대-발레						1.96*

⑥ <표-18> 「지도 받는 방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 현대무용 전공자가 지도 받는데 있어서 더 많이 만족하는 것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⑦ 영역 VII - 타인의 평가에 대한 반응에서는 전공별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⑧ 영역 VIII - 연습 방법 연구에 대한 반응에서는 전공별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19> 영역 IX-가정환경에 대한 반응

총계 / 전공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전체	t
평균	3.19	3.40	3.33	3.31	
표준편차	0.62	0.74	0.70	0.69	
현대-한국					1.60**
한국-발레					0.61
현대-발레					1.99**

* $p < 0.05$ ** $p < 0.01$ *** $p < 0.001$

⑨ <표-19>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 한국무용 전공자가 가정환경이 무용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유의한 반응을 나타냈고,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 발레 전공자가 가정환경이 무용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표-20> 영역 X - 무용에 대한 태도에 대한 반응

총계 / 전공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전체	t
평균	3.60	3.64	3.51	3.58	
표준편차	0.73	0.83	0.85	0.80	
현대-한국					0.26
한국-발레					1.98**
현대-발레					0.58

⑩ <표-20> 「무용에 대한 태도」에 관한 관심도에 있어서는;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 한국무용 전공자가 5%수준에서 유의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2) 영역별 · 전공별 · 문항별

각 영역별에서 평균치가 높은 두 문항만 골라서 비교하였다. 표는 유의한 반응이 나타난 것만 작성하였다.

① 영역 I - 신체적 조건

문항 1 ‘날씬한 외모’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이 점수 상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외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문항 5 ‘몸매관리’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이 몸매에 신경을 썼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가 신경을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몸매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표-21> ② 영역 II - 건강도

문항6	많은 공연에도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58	0.91	3.27	1.28	3.03	1.31
		현대 - 한국		한국 - 발레		현대 - 발레	
	t	1.54		1.15		2.60	
	p	0.1 < p		0.1 < p		** 0.01 > p	

문항6 ‘많은 공연에도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현대무용이 건강에 더 자신을 가졌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더 건강하였으나,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현대무용 전공자가 훨씬 더 건강에 자신을 가졌으며, 반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문항 9 ‘연습시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연습시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연습시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다.

<표-22> ③ 영역 III - 불안

문항14	부정적 인 생각	현 대 무 용		한 국 무 용		발 레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2.42	0.87	2.93	1.08	2.71	1.26
		현대 - 한국		한국 - 발레		현대 - 발레	
	t	2.72		1.18		1.41	
	p	** 0.01 > p		0.1 < p		0.1 < p	

문항 13 ‘불안, 초조, 짜증이 난다’ 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불안을 조금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불안을 조금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불안을 훨씬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문항 14 ‘부정적인 생각’ 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더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반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점수 상 약간 높게 나타났고,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점수 상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④ 영역 IV - 스트레스

문항 16 ‘자기의사 표시나 불만 표현’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점수상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모두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문항 17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에 연습 곤란함’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남의 의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점수 상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⑤ 영역 V - 무대 공포증

문항 20 ‘관중 앞에서 몸이 굳어진다’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점수 상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모두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문항 21 ‘표현방식에 대한 자신감’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자신감에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점수 상 약간 높게 나타났으

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모두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⑥ 영역 VI - 지도 받는 방법

문항 24 ‘작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지도’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현대무용 전공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현대무용 전공자가 점수 상 훨씬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문항 26 ‘충분한 가르침을 받는다’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현대무용 전공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현대무용 전공자가 점수 상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표-23> ⑦ 영역 VII - 타인의 평가

문항33	비평받은 후 자기 자신의 위축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17	1.13	3.19	1.12	2.92	1.16
		현대 - 한국		한국 - 발레		현대 - 발레	
	t	0.12		1.50		4.61	
	p	0.1 < p		0.1 < p		*** 0.001 > p	

문항 33 ‘비평받은 후의 자기 자신의 위축도’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점수상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현대무용 전공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반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문항 35 ‘최고의 무용수가 아닌 것에 대한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현대무용 전공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점수 상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⑧ 영역Ⅷ - 연습 방법 연구

문항 37 ‘어떻게 출 것인가에 대한 상상’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점수 상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문항 39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점수 상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표-24> ⑨ 영역Ⅸ - 가정환경

문항46	부모님의 불화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58	1.16	3.10	1.38	3.13	1.27
		현대 - 한국		한국 - 발레		현대 - 발레	
	t	2.09		0.17		2.28	
	p	** 0.01 < p < 0.05		0.1 < p		** 0.01 < p < 0.05	

문항 44 ‘완벽한 무용수에 대한 기대’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점수 상 좀 더 많이 나타났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좀 더 많이 나타났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모두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문항 46 ‘부모님의 불화’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부모님의 불화로 인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발레 전공자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났으며, 반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25> ⑩ 영역 X - 무용에 대한 태도

문항48	무용에 대한 만족감	현 대 무 용		한 국 무 용		발 레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3.17	1.16	3.48	1.16	2.97	1.06
		현대 - 한국		한국 - 발레		현대 - 발레	
	t	1.36		2.87		0.85	
	p	0.1 < p		** 0.01 > p	0.1 < p		

문항 48 ‘무용에 대한 만족감’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훨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응이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현대무용 전공자가 점수 상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문항 50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감’에 관하여서는,
현대무용 대 한국무용 전공자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한국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점수 상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현대무용 대 발레 전공자에서는 현대무용 전공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반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 무용 전공학생들의 준비도 조건을 영역별, 문항별, 전공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영역별 준비도

1) 신체적 조건인 ① 신체적 조건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과 관심을 보였고, ② 건강도에서도 자신의 건강상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2) 심리적 조건인 ① 불안에서는 불안에 대한 심리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이 있는 쪽으로 반응을 보였고, ② 스트레스에서도 대체로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③ 무대 공포증에 있어서도 무대에 대한 공포심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3) 사회적(환경적)조건인 ① 지도 받는 방법에서는 작품에 임할 때 선생님과 교류에서는 서로 대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그 외의 개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대화를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② 타인의 평가에서는 타인의 시선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왔으나, 공연자체와 동료와의 유대관계, 자기에 대한 인식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③ 연습방법에서 무용 전공학생들은 연습에 많이 충실하고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왔다. ④ 가정환경에서는 부모의 기대와 불화 정도가 자기에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으며, ⑤ 무용에 대한 태도에서는 자신이 무용을 하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와 같이 무용 전공학생들의 준비도의 반응을 보며, 이를 기초로 해서 지도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전공별 학생들간의 준비도 비교

1) 신체적 조건인 ① 신체적 조건에서 발레 전공자가 한국무용, 현대무용 전공자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② 건강도에서는 현대무용 전공자가 건강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2) 심리적 조건에서 ① 불안은 발레 전공자가 더 많이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②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왔으며, ③ 무대 공포증에서도 한국무용 전공자가 무대에 대한 공포 불안 심리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3) 사회적(환경적)조건인 ① 지도받는 방법에서 현대무용 전공자가 지도 받는데 있어서 만족한 것으로 나왔고, ② 타인의 평가에서는 현대무용 전공자가 타인에 대한 시선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왔다. ③ 연습방법에서 현대무용 전공자가 연습하는데 있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왔고, ④ 가정환경에서 한국무용 전공자가 무용하는데 있어서 가정환경이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⑤ 무용에 대한 태도에서는 한국무용 전공자가 무용을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와 같이 전공별 학생간에 여러 영역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차이에 관한 무용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결 론

본 조사 연구는 무용 전공학생들 무용 수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준비성에 관해서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대체적으로 무용수들은 자신들의 신체적 조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에 대해서는 불안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환경으로부터는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반응했다. 특히 지도자와 개인간의 상호작용이 적은 것으로 반응하여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무용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에 기초를 두고 학생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신체적 조건은 무용수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조건이므로 후천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건강도, 불안, 스트레스, 무대 공포증, 연습방법, 태도면은 무용수 스스로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지도받는 방법, 타인의 평가, 주변환경에서는 지도자, 동료, 부모님 등에게 영향을 받아 무용수들이 무용수행에 좌우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용수는 무용수행 과정에서 이들과의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점이 무엇인지등 서로간에 대화를 하는 충분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용전공학생들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수행도록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신체 상태, 환경상태, 여러 가지 심리적 조건들이 무용수행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 방면의 실증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고흥환, 김종선 공역 (1981). *스포츠 심리학*. 서울 : 금화 출판사.
- 고흥환, 김기웅, 장국진 (1994). *운동행동의 심리학*. 서울 : 보경 문화사.
- 김종선 (1986). *스포츠 심리학 개론*. 서울 : 선인 문화사.
- 강혜원, 장명림 (1987). 유아 학습준비도 검사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 87-39*.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문 영 (1999). *무용 심리학*. 서울 : 보경 문화사.
- 변창진 (1995). *교육심리 - 인지발달적 접근 -*. 서울 : 교육 과학사.
- 박준희 (1998). *무용심리학개론*. 서울 : 대한미디어.
- 심리척도 핸드북 (1999).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학지사.
- 이현수 (1999). *심리학의 원리*. 서울 : 양서원.
- 양명환 (1994). *스포츠 심리학(주의와 운동수행)*. 서울 : 태근 문화사.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 전매희, 방희정 공역 (1987). *스포츠 심리학*. 서울 : 금광 출판사
- 정청희 역 (1996). *운동수행과 학습*. 서울 : 태근 문화사.
- 최영근 외 2인 (1987). *스포츠 심리학 Q & A*. 서울 : 명진당.
- 특수교육학 용어 사전 (1980). 서울 : 교육 과학사.
-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 (1998). *스포츠 심리학*. 서울 : 태근 문화사.

[국외문헌]

- 大山 正, 吉田正招 (1978). 心理學小辭典, 283
- 小林利宣 (1980). 教育・臨床心理學 辭典. (珠)北大路書房, 408.
- 梅本堯夫 (1983). 家庭과 學校, 어린이의 知能의 發達. 金子書房, 45-60
- 宮本美沙子 외 (1979). 유아용의 통제 범위의 궤도(locus of control scale)에 대해서, 敎心 21회 총회 논문집 867-868항.
- 宮本美沙子 (1979). 達成動機의 心理學. 金子書房, 제3장참조.

[국내 석·박사 논문]

- 김정애 (1994). 사회적지지, 자각지각과 자아방어 기제, 불안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계숙 (1998). 무용공연시 심리적 불안의 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9(2), 212.
- 김승근 (1999). 무용수의 공연에 대한 심리적 기능 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0집, 113-116
- 김기웅, 전상돈 (1995). 동작전 정보와 동작후 정보의 상호작용적 학습효과. 한국스포츠 심리학회지, 6, 43-47.
- 김지혜 (1991). 자기 초점화 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김정인 (1997). 부정 정동과 사회적 기대와 직무 스트레스와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 영 (1998). 사전정보제시방법에 따른 무용수의 기술수준별 동작수행 및 학습 효과. 한국무용교육학회지, 9(2), 221-229.
- 문 영 (2000). 연습조건과 공연조건간의 유사성 종류와 기술 수준에 따른 공연상 태불안과 동작수행 및 학습 효과. 한국 무용과학회지, 173-185.
- 박윤창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용철 (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훈진 ·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아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편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77-290, 서울 : 편자.
- 이희선 (1997). 무용의 심리학적 연구영역. 한국무용교육학회지, 8(9), 70.
- 조윤라 (1996). 무용수의 무대불안과 점진이완 기법의 효과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숙 (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애 (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제 상호작용 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33.

[국외 논문]

- Alderman, R. B. (1974). *Psychological behavior in sport*. Philadelphia: Saunders.
- Bloom, B. (1976).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McGraw-Hill.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Davison, M. & Cooper, C. (1983). *Stress and Woman Manager*. Oxford, Martin Robert Son & Company Ltd.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of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Humphrey, J. H. (1986). *Profiles in stress*. New York: AMS Press, Inc.
- Hoskisson, K. (1977). Reading readiness: Three viewpoints. *School Journal*, 78, 44-52.
- Hayes, M.; Mason, E.; & Covert, R. (1975). Validity and simple device for readiness screening. *Educational Psychological Measurement*, 35, 495-498.
- ISSP (1991). *Physical activity and psychological benefit*. An ISSP Position Statement, Newsletter, 2, 1-3.
- J. H. Bossard, (1960). *The Sociology of Child Development*, N.Y. Harper & Brothers, 128-129.
- K. Koffka, (1965).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N.Y. Harcourt Brace, 27-28.

- Knox, B. J. & Glover, J. A. (1978). A note on preschool experiy on achievement, readiness, and creativity. *Journal Psychology*, 132, 151-152
- Levitt, E. E.(1980). *The psychology of anxiety*. Hillsdale, NJ: Erlbaum.
- Martens, R.(1990). *Competitive anxiety in sport*.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Miller,L. C. Murphy, R. & Buss, A. H. (1981). Consciousness of private and publ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gy*, 41, 397-406.
- Pheasant, M. Aumsville school district' s readiness program: Helping first graders succeed. Oregon School Study Council, Eugence, 1985. (ERIC Document Reprouduction Service No. ED252 967).
- R. G. Baker, (1968). *Ecological Psychology : Concepts and Methods for Studying the Enviromment of Human Behavior*, Stanford Calif : Standford University Press, 35-9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ichek, M. A. (1977-78). Readiness skills that predict initial was using two different methods of instruction. *Reading Quarterly*, 13, 200-222.
- Schmidt, R, A. (1988), *Motor Skills*, NY : Harper & Row.
- Selye, H. (1975). *Stress without distres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Suls, J, & Mullen, B. (1982). *From the candle to the grave : Comparison and self-concepts of self-evaluation across the life-span*.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Hillsdale, N. J.: Erlbaum, 97-125.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pielberher, C. D. (1966). Theory and research on anxiety. In C. D. Spielberger(Ed.), *Anxiety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Taylor, J & Taylor, C. (1955). *무용심리학* (박중길 역, 1995), 서울 : 들불출판사, 174-176.
- Welford, A. T. (1976). *Skilled performanc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
- Zigler, E, & Seitz, V. (1982). *Head Start: a National Laborator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61, 81-90.

ABSTRACT

A Survey on Readiness of Dance major Students preparing
for Stage performance

Wu, Jong Suk

Department of Dance

Graduate School of

Hansong University

Supervisor:

Prop. Kim, Jae Eun

Preparedness for a person majoring dancing can more or less effect the result of the performance. The effect can be negative or positive. Therefore, a good preparedness can never be overemphasized. The purpose of the above thesis is to offer an essential data for studying the psychological effect in performance.

In this study the writer tries to survey and classify the perception of the students who are majoring dancing in the universities and colleges. The writer endeavoured to find out any possible difference among the students majoring dancing. Questionnaire was given to the 194 students of 4 randomly chosen universities in the area of Seoul and Chungchongnamdo. They are all majoring in dancing. The students requested were supposed to fill out the question boards.

The result of the survey is as follows:

Average students majoring dancing are very interested in their own bodies. More students have rather optimistic thought. Few students have unstable and pessimistic mind. In sociological or environmental situation, they showed to be influenced by their parents, teachers or others. Especially the student majoring ballets are interested in their body.

Students majoring modern dance showed to be proud of their being healthier than other students. In psychological condition, in other hands, modern dancers are more unstable. In environmental or sociological conditions, more students majoring modern dance are more optimistic. Students majoring korean traditional dance are rather unstable and pessimistic.

It is concluded that the students should be good prepared for the performance. To a successful performance a preparedness is essential.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대학원학생들이 무용 공연전에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과 자신감에 대한 염려를 갖게되는 현상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작성된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결과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에 낼 석사학위 논문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내기 위해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성의껏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무용학과 우정숙 드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1999

※ 기록해 주실 것

1. 전공 :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2. 성별 : 남() 여()
3. 학부(학년) 대학원(학기) 졸업생(졸업후 년)

※ 다음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아서, 귀하께서 평소 느끼시는 바를 해당란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내용	척도				
		전혀 아니다 ①--	약간 그렇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늘 그렇다 ⑤
I						
1	나는 무용수로서 날씬한 외모를 가졌으면 좋겠다.					
2	나는 무용수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누군가와 나의 외모를 비교한다면, 나는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진다.					
4	나는 무용하기에 비만이라고 생각한다.					
5	나는 항상 몸매관리에 신경을 쓴다.					
II						
6	나는 여러번 공연을 해도 건강에는 별 지장이 없다.					
7	나는 감기나 배탈이 잘나서 공연에 임하면 걱정이 된다.					
8	공연을 앞두고 매번 식사후에는 소화가 잘 안된다.					
9	연습시에는 두통, 소화불량 등이 나타나곤 한다.					

※ 다음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아서, 귀하께서 평소 느끼시는 비율 해당란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내용	척도				
		전혀 아니다 ①--	약간 그렇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늘 그렇다 ⑤
III						
10	나는 성공적인 공연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패의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낀다.					
11	나는 어떤 공연이든 잘 해낼 수 있다.					
12	공연 연습중에는 모든 일들이 귀찮아진다.					
13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이 자주 난다.					
14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활한다.					
IV						
15	동료들과 함께 연습한다는 것은 나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16	연습중에는 선생님에게 자기의사 표시나 불만을 표현하지 못한다.					
17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느껴져서 연습하기가 곤란하다.					
18	공연전날에는 잠이 깊이 들지 않고 자주 깬다.					
19	계획없이 밤늦게까지 연습해야 할 때가 많다.					

※ 다음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아서, 귀하께서 평소 느끼시는 바를 해당란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내용	적도				
		전혀 아니다 ①--	약간 그렇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늘 그렇다 ⑤
V						
20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몸이 굳어진다.					
21	나는 무대에 서면 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자신이 없어진다.					
22	공연 전 불안할 때는 음식을 먹는다.					
23	나는 무대에 서면 입이 마르고 목이 타는 걸 느낄 수 있다.					
VI						
24	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지도를 받는다.					
25	나는 몸의 컨디션에 대해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한다.					
26	나는 여러번 공연을 해도 염려할 것 없을 정도로 가르침을 받는다.					
27	나는 어떤 공연이든 작품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도를 받는다.					
28	나는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연에 임한다.					
29	자신의 능력이 의심스럽고 힘들 때 선생님께서로부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는다.					

※ 다음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아서, 귀하게서 평소 느끼시는 비율 해당란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내용	척도				
		전혀 아니다 ①--	약간 그렇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몰 그렇다 ⑤
VII						
30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공연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경을 쓴다.					
31	나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항상 의식하고 있다.					
32	나는 동료들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33	과거에 비평을 받은 경험을 생각할 때 자기자신이 위축된다.					
34	주위 사람들은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35	내가 무용수로서 최고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게 볼 것이다.					
36	내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비록 나타내지는 않지만 매우 실망할 것이다.					
VI						
37	나는 춤을 어떻게 출 것인지 상상한다.					
38	과거에 실수한 동작이 있을 때 연습시 그 동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39	자기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 다음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아서, 귀하께서 평소 느끼시는 바를 해당란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내용	척도				
		전혀 아니다 ①--	약간 그렇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런 편이다 ④--	꽤 그렇다 ⑤
40	실수에 대한 대처방안도 생각하며 연습한다.					
41	나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란다.					
42	나는 가능한 한 기술(테크닉)을 빈틈없이 연습하려고 한다.					
IX						
43	부모님은 내 춤이 뛰어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44	나의 가족은 내가 완벽한 무용수이기를 기대한다.					
45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내게 매우 중요하다.					
46	부모님의 불화는 나에게 큰 영향을 준다.					
47	부모님의 열성적인 성원은 나에게 큰 영향을 준다.					

※ 다음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아서, 귀하께서 평소 느끼시는 바를 해당란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질문내용	척도				
		전혀 아니다 ①--	약간 그렇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몰 그렇다 ⑤
X						
48	나는 하고 있는 무용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다.					
49	나는 동료들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50	나는 선생님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51	나는 한 사람의 무용수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2	나는 내가 도대체 왜 무용하는지 모르겠다.					
53	열심히 무용해보았자 나의 진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					

부 록(I)

번호 점수	학 부(167명)						대 학 원(27명)							
	I	1	2	3	4	5	평균 (%)	1	2	3	4	5	평균 (%)	총평균 (%)
1	9명 5.39 %	11명 6.59 %	14명 8.38 %	49명 29.34 %	85명 50.9 %		4.16	2명 7.40 %		3명 11.11 %	9명 33.33 %	13명 48.14 %	4.15	4.16
2	39명 23.4 %	36명 21.6 %	65명 38.9 %	20명 12% %	6명 3.6% %		2.49	5명 18.51 %	8명 29.62 %	7명 25.92 %	6명 22.22 %	1명 3.70 %	2.63	2.56
3	3명 1.8% %	35명 21% %	62명 37.12 %	34명 20.4 %	33명 19.8 %		3.36	1명 3.70 %	1명 3.70 %	12명 44.44 %	4명 14.81 %	9명 33.33 %	3.70	3.53
4	16명 9.6% %	36명 21.6 %	48명 28.7 %	31명 18.6 %	41명 24.6 %		3.36	2명 7.40 %	2명 7.40 %	4명 14.81 %	9명 33.33 %	10명 37.03 %	3.85	3.61
5	16명 9.6% %	27명 16.2 %	41명 24.6 %	37명 22.2 %	46명 27.5 %		3.42	2명 7.40 %	9명 33.33 %	8명 29.62 %	5명 18.51 %	3명 11.11 %	2.93	3.18
합계 (명)	83	140	230	171	211		3.36	12	20	34	33	36	3.45	3.41
합계 (%)	20.14	17.88	27.54	20.03	15.10			21.48	19.25	25.18	20	14.07		

번호 □	학 부(167명)						대 학 원(27명)						
	1	2	3	4	5	평균 (%)	1	2	3	4	5	평균 (%)	총평균 (%)
6	25명 15%	21명 12.6 %	42명 25.14 %	53명 31.73 %	26명 15.6 %	3.21	2명 7.40 %	2명 7.40 %	9명 33.33 %	12명 44.44 %	2명 7.40 %	3.37	3.29
7	8명 4.8%	17명 10.2 %	28명 16.8 %	30명 18% %	84명 50.3 %	3.99	0.0% %	1명 3.70 %	8명 29.62 %	6명 22.22 %	12명 44.44 %	4.07	4.03
8	10명 6%	22명 13.2 %	44명 26.34 %	26명 15.6 %	65명 38.92 %	3.68	2명 7.40 %	5명 18.51 %	7명 25.92 %	4명 14.81 %	9명 33.33 %	3.48	3.58
9	9명 5.4%	17명 10.2 %	30명 18% %	35명 21% %	76명 45.50 %	3.91	1명 3.70 %	3명 11.11 %	3명 11.11 %	4명 14.81 %	16명 59.3 %	4.15	4.03
합계 (명)	52	77	144	144	251	3.70	5	11	27	26	39	3.77	3.74
합계 (%)	37.43	16.8	21.57	16.33	7.95		36.12	14.81	25	19.44	4.63		

번호 점수	학 부(167명)						대 학 원(27명)						
	1	2	3	4	5	평균 (%)	1	2	3	4	5	평균 (%)	총평균 (%)
10	48명 28.74 %	29명 17.4 %	50명 29.94 %	35명 21%	5명 3%	2.52	8명 29.62 %	8명 29.62 %	9명 33.33 %	1명 3.70 %	1명 3.70 %	2.22	2.37
11	15명 9%	47명 28.14 %	59명 35.32 %	29명 17.4 %	17명 10.2 %	2.92	1명 3.70 %	8명 29.62 %	14명 51.9 %	3명 11.11 %	1명 3.70 %	2.82	2.87
12	33명 19.8 %	39명 23.4 %	57명 34.13 %	29명 17.4 %	9명 5.4%	2.66	6명 22.22 %	4명 14.81 %	9명 33.33 %	7명 25.92 %	1명 3.70 %	2.74	2.70
13	37명 22.2 %	28명 16.8 %	53명 31.73 %	44명 26.34 %	5명 3%	2.71	9명 33.33 %	5명 18.51 %	11명 40.74 %	1명 3.70 %	1명 3.70 %	2.26	2.49
14	23명 13.8 %	43명 25.74 %	63명 37.72 %	22명 13.2 %	16명 9.6%	2.79	3명 11.11 %	15명 55.6 %	4명 14.81 %	4명 14.81 %	1명 3.70 %	2.44	2.62
합계 (명)	156	186	282	159	252	2.72	27	40	47	16	5	2.50	2.61
합계 (%)	18.11	17.64	33.77	23.72	6.84		18.51	17.77	34.82	23.71	5.18		

번호 점수	학 부(167명)						대 학 원(27명)						
	1	2	3	4	5	평균 (%)	1	2	3	4	5	평균 (%)	총평균 (%)
15	76명 45.50 %	27명 16.2 %	44명 26.34 %	14명 8.4%	6명 3.6%	2.09	14명 51.9 %	5명 18.51 %	5명 18.51 %	2명 7.40 %	1명 3.70 %	1.93	2.01
16	27명 16.2 %	24명 14.38 %	38명 22.8 %	48명 28.74 %	30명 18%	3.18	1명 3.70 %	5명 18.51 %	8명 29.62 %	9명 33.33 %	4명 14.81 %	3.37	3.28
17	55명 32.93 %	24명 14.4 %	53명 31.73 %	26명 15.6 %	9명 5.4%	2.46	16명 59.3 %	4명 14.81 %	5명 18.51 %	1명 3.70 %	1명 3.70 %	1.78	2.12
18	64명 38.32 %	38명 22.8 %	41명 24/6 %	15명 9%	9명 5.4%	2.21	12명 44.44 %	6명 22.22 %	3명 11.11 %	5명 18.51 %	1명 3.70 %	2.15	2.18
19	37명 22.2 %	35명 21%	42명 25.14 %	39명 23.4 %	14명 8.4%	2.75	7명 25.92 %	6명 22.22 %	7명 25.92 %	4명 14.81 %	3명 11.11 %	2.63	2.69
합계 (%)	259	148	218	142	68	2.54	50	26	28	21	10	2.37	2.46
합계 (%)	31.03	17.76	26.12	17.03	8.16		37.05	19.25	20.73	15.55	7.40		

번호 V	학 부(167명)						대 학 원(27명)						
	1	2	3	4	5	평균 (%)	1	2	3	4	5	평균 (%)	총평균 (%)
20	33명 19.8 %	52명 31.13 %	47명 28.14 %	27명 16.2 %	8명 4.8%	2.55	9명 33.33 %	9명 33.33 %	8명 29.62 %	1명 3.70 %	0.0%	2.07	2.31
21	39명 23.35 %	44명 26.34 %	48명 28.74 %	26명 15.6 %	10명 6%	2.55	10명 37.03 %	6명 22.22 %	10명 37.03 %	1명 3.70 %	0.0%	2.07	2.31
22	50명 29.94 %	27명 16.2 %	45명 26.94 %	33명 19.8 %	12명 7.2%	2.67	8명 29.62 %	5명 18.51 %	6명 22.22 %	7명 25.92 %	1명 3.70 %	2.55	2.61
23	45명 26.94 %	44명 26.34 %	35명 21%	31명 18.6 %	10명 6%	2.50	12명 44.44 %	5명 18.51 %	4명 14.81 %	6명 22.22 %	0.0%	2.15	2.33
합계 (명)	167	167	175	117	40	2.57	39	25	28	15	1	2.21	2.39
합계 (%)	25.0	25.0	26.21	17.55	6		36.11	23.14	25.92	13.89	0.93		

번호 점수	학 부(167명)						대 학 원(27명)						
	1	2	3	4	5	평균 (%)	1	2	3	4	5	평균 (%)	총평균 (%)
24	24명 14.37 %	35명 21%	42명 25.14 %	42명 25.14 %	23명 13.8 %	3.01	2명 7.40 %	4명 14.81 %	6명 22.22 %	10명 37.03 %	5명 18.51 %	3.44	3.23
25	68명 40.71 %	36명 21.6 %	37명 22.2 %	20명 12%	6명 3.6%	2.17	10명 37.03 %	8명 29.62 %	6명 22.22 %	3명 11.11 %	0.0%	2.07	2.12
26	28명 16.8 %	60명 35.92 %	46명 27.54 %	24명 14.4 %	7명 4.2%	2.49	5명 18.51 %	2명 7.40 %	9명 33.33 %	11명 40.74 %	0.0%	2.96	2.73
27	21명 12.6 %	60명 35.92 %	50명 29.94 %	29명 17.4 %	7명 4.2%	2.65	3명 11.11 %	7명 25.92 %	11명 40.74 %	6명 22.22 %	0.0%	2.74	2.70
28	13명 7.8%	38명 22.8 %	53명 31.73 %	42명 25.14 %	21명 12.6 %	3.12	3명 11.11 %	4명 14.81 %	8명 29.62 %	9명 33.33 %	3명 11.11 %	3.18	3.15
29	38명 22.8 %	35명 21%	47명 28.14 %	38명 22.8 %	9명 5.4%	2.67	5명 18.51 %	7명 25.92 %	8명 29.62 %	7명 25.92 %	0.0%	2.63	2.65
합계 (명)	192	264	275	195	73	2.69	28	32	48	46	8	2.84	2.77
합계 (%)	19.18	26.37	27.45	19.48	7.3		17.28	19.75	29.63	28.39	4.94		

번호 점수	학 부(167명)						대 학 원(27명)						
	1	2	3	4	5	평균 (%)	1	2	3	4	5	평균 (%)	총평균 (%)
30	9명 5.4%	27명 16.2 %	29명 17.4 %	70명 42%	32명 19.2 %	3.54	0.0%	2명 7.40 %	6명 22.22 %	13명 48.14 %	6명 22.22 %	3.85	3.70
31	6명 3.6%	28명 16.8 %	40명 24%	65명 38.92 %	28명 16.8 %	3.49	5명 18.51 %	6명 22.22 %	5명 18.51 %	7명 25.92 %	4명 14.81 %	2.96	3.23
32	7명 4.2%	16명 9.6%	33명 19.8 %	65명 38.92 %	46명 27.54 %	3.76	0.0%	1명 3.70 %	3명 11.11 %	14명 51.9 %	9명 33.33 %	4.15	3.96
33	13명 7.9%	36명 21.6 %	49명 29.34 %	52명 31.13 %	16명 9.6%	3.12	6명 22.22 %	5명 18.51 %	8명 29.62 %	6명 22.22 %	2명 2.70 %	2.74	2.93
34	14명 8.4%	34명 20.4 %	68명 40.71 %	44명 26.34 %	7명 4.2%	2.98	1명 3.70 %	6명 22.22 %	10명 37.03 %	6명 22.22 %	4명 14.81 %	3.22	3.10
35	50명 29.94 %	30명 18%	36명 21.6 %	44명 26.34 %	6명 3.6%	2.54	16명 59.3 %	2명 7.40 %	7명 25.92 %	2명 7.40 %	0.0%	1.81	2.18
36	32명 19.2 %	39명 23.4 %	42명 25.14 %	36명 21.6 %	18명 10.8 %	2.82	4명 14.81 %	9명 33.33 %	8명 29.62 %	5명 18.51 %	1명 3.70 %	2.63	2.73
합계 (명)	131	210	297	376	153	3.18	32	31	47	53	26	3.05	3.12
합계 (%)	11.23	18	25.43	32.18	13.11		16.93	16.4	24.86	28.04	13.75		

번호 영수	학 부(167명)						대 학 원(27명)							
	VIII	1	2	3	4	5	평균 (%)	1	2	3	4	5	평균 (%)	총평균 (%)
37	12명 7.2%	18명 10.8%	29명 17.4%	60명 35.92%	48명 28.74%	3.68		0.0%	1명 3.70%	0.0%	16명 59.3%	10명 37.03%	4.30	3.99
38	15명 9%	24명 14.4%	36명 21.6%	69명 41.31%	23명 13.8%	3.37		3명 11.11%	5명 18.51%	5명 18.51%	9명 33.33%	5명 18.51%	3.30	3.34
39	18명 10.8%	47명 28.14%	58명 34.73%	25명 15%	19명 11.4%	2.88		5명 18.51%	11명 40.74%	6명 22.22%	4명 14.81%	1명 3.70%	2.44	2.66
40	15명 9%	27명 16.2%	52명 31.13%	51명 30.53%	15명 9%	3.02		4명 14.81%	1명 3.70%	4명 14.81%	13명 48.14%	5명 18.51%	3.52	3.27
41	5명 3%	13명 7.8%	27명 16.2%	51명 30.53%	71명 42.51%	4.02		1명 3.70%	1명 3.70%	3명 11.11%	15명 55.6%	7명 25.92%	3.96	3.99
42	11명 6.6%	21명 12.6%	48명 28.74%	59명 35.32%	28명 16.8%	3.43		3명 11.11%	5명 18.51%	9명 33.33%	8명 29.62%	2명 7.40%	3.04	3.24
합계 (명)	76	150	250	320	204	3.40		16	24	27	65	30	3.43	3.42
합계 (명)	7.7	12.8	24.97	33.63	20.28			7.41	10.49	16.66	44.46	20.98		

번호	학 부(167명)						대 학 원(27명)						
	1	2	3	4	5	평균 (%)	1	2	3	4	5	평균 (%)	총평균 (%)
43	8명 4.8%	27명 16.2%	26명 15.6%	33명 19.8%	73명 43.71%	3.82	1명 3.70%	6명 22.22%	4명 14.81%	3명 11.11%	13명 48.14%	3.78	3.80
44	13명 7.8%	40명 24%	30명 18%	50명 29.94%	33명 19.8%	3.29	8명 29.62%	3명 11.11%	6명 22.22%	8명 29.62%	2명 7.40%	2.74	3.02
45	26명 15.6%	32명 19.2%	38명 22.8%	48명 28.74%	27명 16.2%	3.18	5명 18.51%	6명 22.22%	3명 11.11%	10명 37.03%	3명 11.11%	3.0	3.09
46	30명 18%	36명 21.6%	45명 26.94%	30명 18%	26명 15.6%	2.92	2명 7.40%	4명 14.81%	4명 14.81%	12명 44.44%	5명 18.51%	3.52	3.22
47	20명 12%	17명 10.2%	23명 13.8%	52명 31.13%	55명 32.93%	3.63	3명 11.11%	1명 3.70%	6명 22.22%	9명 33.33%	7명 25.92%	3.48	3.56
합계 (명)	92	152	162	213	214	3.37	19	20	23	42	30	3.30	3.34
합계 (%)	18.94	18.24	19.43	25.52	18.35		25.18	18.52	17.03	27.40	11.11		

번호 점수	학 부(167명)						대 학 원(27명)							
	X	1	2	3	4	5	평균 (%)	1	2	3	4	5	평균 (%)	총평균 (%)
48	16명 9.6%	31명 18.7%	50명 29.94%	49명 29.34%	20명 12%	3.14	0.0%	3명 11.11%	8명 29.62%	10명 37.03%	6명 22.22%	3.70	3.42	
49	8명 4.8%	16명 9.6%	32명 19.2%	85명 50.9%	25명 15%	3.60	0.0%	1명 3.70%	4명 14.81%	15명 55.6%	7명 25.92%	4.04	3.82	
50	17명 10.2%	35명 21%	56명 33.53%	39명 23.4%	19명 11.4%	3.03	0.0%	3명 11.11%	6명 22.22%	12명 44.44%	6명 22.22%	3.78	3.41	
51	9명 5.4%	20명 12%	48명 28.74%	53명 31.73%	36명 21.6%	3.51	3.70%	1명 3.70%	5명 18.51%	6명 22.22%	6명 22.22%	9명 33.33%	3.63	3.57
52	15명 9%	21명 12.6%	47명 28.14%	21명 12.6%	62명 37.12%	3.55	0.0%	2명 7.40%	5명 18.51%	7명 25.92%	13명 48.14%	4.15	3.85	
53	9명 5.4%	11명 6.6%	30명 18%	28명 16.8%	88명 52.7%	4.03	7.40%	2명 7.40%	1명 3.70%	3명 11.11%	21명 77.8%	4.52	4.28	
합계 (명)	74	134	263	275	250	3.48	3	14	30	53	62	3.97	3.73	
합계 (%)	19.97	15.12	26.26	25.76	12.4		21.61	13.58	18.51	27.78	18.52			